

해수부, 홍해 인근 선박 위협 관련 '우리선박 운항상황 점검회의' 개최

- 정부·업계 합동, 홍해 해역의 위협 상황 공유 및 대응 방안 논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21일(목) 오전 10시 한국해운빌딩에서 해운업·단체, 관계기관이 참여한 홍해 인근 우리 선박 운항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운항하는 민간선박에 대한 공격을 지속함에 따라 MSC, MAERSK, CMA CGM 등 외국 해운사와 HMM 등 일부 국적 선사에서 일시적으로 홍해 운항 중단을 결정하고 남아공 희망봉으로 우회 운항을 하고 있다. 홍해는 연간 2만여척의 전 세계 선박이 통항하는 국제적 주요 항로로 우리 선박은 최근 1년간 540여척이 통항하였다.

해수부는 지난 11월부터 국정원, 외교부, 국방부, 합참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홍해 내 민간선박 위협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 해운업계에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유사시 행동요령을 제공해 오고 있다. 아울러, 홍해 인근 우리 선박의 운항 상황을 24시간 추적·관찰하고 유사시 연합해군의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국과 협조체계도 가동 중이다.

이번 회의에는 HMM, 장금상선, 대한해운, SK해운, 현대글로비스, 팬오션 등 8개 주요 국적선사 관계자, 한국해운협회 등 선주단체 및 관련 정부기관들이 참석하여 홍해 해역의 위협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부는 우리 선박의 안전보장을 위해 최선의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다”라며, “홍해 인근을 운항하는 선박은 최고 수준의 항행 상 안전조치를 하도록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민중 (044-200-5850)
		담당자	사무관	문승록 (044-200-5851)